

“산하기관장 새 인물 요구 많다”

김영록 지사, 개발공사 등 공모 시스템 반도체 적극 공약 의지 해외관광객 300만명 유치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공모를 통해 도 산하기관 기관장에 새 인물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인물 새 인사를 기용해달라는 요구가 안팎으로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산하기관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전남개발공사를 예로 들며 “현 김철신 사장이 우수한 성과를 많이 냈지만 변화를 바라는 요청이 많

았다”며 공모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또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들도 새로운 인물로 공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기관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장 자리도 있다”며 “일반적인 자리이든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장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런 인물을 뽑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상생협력 현안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유치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등과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작은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고 광주와 전남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도 전남의 체류형 관광산업을 일으키는데 어렵지만 중요한 목표”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숙박시설 확대 등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이한열 열사 35주기 추모사를 통해 “열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도야! 전남 행복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 열사는 짧은 생을 마치고 산화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다”며 “그의 고귀한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졌고, 영원한 민주화 운동의 영웅으로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폐가 주변 환경정화 활동 광주 남구 사직동 김근석 동장과 직원, 통장단은 5일 일제대청소 날을 맞아 관내 방치된 폐가 주변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남구청 제공

시-지역대학, 재난안전 전문인재 키운다

전남대·호남대·광주대서 실무중심 석·박사급 양성

광주시가 지역대학과 손잡고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재난안전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남대, 호남대, 광주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1년간 4,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각 대학은 수립한 목표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지급 등에 시비지원금을 활용한다.

각 대학은 재난안전분야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등을 필수 과목으로, 방재안전의 기반이 되는 인문, 사회, 공학, 경제 등은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현장 실무중심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최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이상기후,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 등에 따른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한

반면,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해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재난관리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핵심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재난안전산업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5일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을 적극 지원해 지역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 도민발전소 이익금 기탁 ‘첫 결실’

전남개발공사·한국중부발전 20년간 수익금 50% 기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 건립한 전남 도민발전소가 수익금 일부를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첫 기탁했다.

전남개발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5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250만원의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이호태 한국중부발전 사업본부장·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2020년 12월 구례 섬진강어류생태관에 설치한 태양광 500kW 규모의 제1호 도민발전소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한 것이다.

앞으로 20년간 발전소 수익의 50%를 전남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도민발전소는 전남도가 2030년까지 16조 6,260억원을 들여 5GW 규모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와 도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도형(2개소 20.5MW)은 발전 수익의 50%를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정 기탁하고, 주민주도형(8개소 937MW)은 수익을 도민과 공유한다.

문금주 부지사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 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한 도민발전소가 장학금 기탁으로 도민에게 그 이익을 환원하는 첫발을 뗐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산림자원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3회 연속 선정 쾌거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3회 연속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증식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식물의 보존현황, 전문인력의 수준, 각종 시설 현황 등을 심사에 지정한다.

연구소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전남지역에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향토자원의 조사·보존에 관한 연구와 자생자원 추출물의 특성 평가와 같은 기능성 분석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지난 2012년 ‘수목유전자원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600종의 식물유전자원을 관리했다. 2017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해마다 산림자원탐사단을 운영

했다. 희귀특산식물을 조사하고 산림바이오소재 추출물 은행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산림자원 조사와 연구로 현재 920종의 식물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 식물유전자원은 전남지역 자생 희귀수종인 조도만두나무, 완도솔꽃나무 등이다. 이밖에 서양송로버섯(트리플), 참비늘버섯, 꽃송이버섯의 균주 등 산림 미생물 자원 55종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국내 미기록종인 완도솔꽃나무 자생지를 최초로 발견한 것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주요 학술지 연구 논문 4편 게재, 특허 등록 7건, 산림 신품종 개발 1건의 성과를 거뒀다.

오득실 소장은 “전남에서 자생하는 산림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보전 및 이용 기술 개발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더 나아가 국내 산림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폭염·물놀이 사고 주의하세요”

광주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폭염과 호우,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폭염이 길고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에는 7월 중 처음 있었던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올해는 각각 12일, 16일 빠르게 6월 중에 나타났다.

장마도 지난해에 비해 일찍 찾아왔고 북태평양 고기압 등의 발달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 등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재난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옥외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 또는 중지해야 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구와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고,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물놀이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하천(강가), 갯벌, 계곡, 바닷가 등 장소별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여름철 재난 유형별 대책을 수립해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 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현장대응반 등을 운영 중이다. /김용현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구직·오입·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태양광발전사업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동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전소명칭: 문평 수, 윤, 자일4, 문평강운, 지현, 문평소영 행복, 제하, 씨엘2호
- 발전소위치: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587, 591, 592, 592-1, 593-1, 586, 587-1
- 발전소면적: 12,281㎡
- 발전사업용량: 99.51kw × 97개소 895.59kw
- 사업개시예정일: 2022.12.31
- 사업운영기간: 2022.12.31. ~ 2042.12.30 (사업개시예정일부터 20년)
- 발전사업허가신청자: 손민수, 박병운, 박영자, 김강운, 최기현, 김소영, 김남중, 유정자, 최 건
- 의견제출 기간: 2022년 7월 6일 ~ 2022년 7월 12일(7일간)
- 의견제출 방법: 전 화: 010-9974-9515
E-mail: yeom711@naver.com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계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원 박배성 302-0316-649511